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새해를 맞아 각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 오후 2시 사무실에서 공동체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학교 6학년이 13일(화)부터 23일(금)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졸업여행을 다녀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무림사랑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태규 집사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2 호

2026년 1월 1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낸 열매

기독교대학교연맹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수)부터 9일(금)까지 2박 3일 동안 충북 보은의 속리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공동체학교 교사들이 짙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다음세대를 키우는 기독교사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350여명의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선생님들이어서 그런지, 모든 순서의 진행과 참여에 별다른 어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온 여러 교사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선택강의가 외부에서 온 사람보다는 대부분 각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선정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강사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강의에도 선생님들이 신청해서 참여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결국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보다는 배우는 쪽에서 받아들여려는 수용적인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듣고자 한다면, 거의 모든 것에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있다면 반명교사도 도처에 널려있다는 점에서 배움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벌써 25회가 되었습니다. 연합 모임이 이토록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들 놀라워합니다.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성향과 배경과 과정과 특성을 가진 학교들이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큰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점에서 서로를 하나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대안학교를 시작했던 초창기 멤버들의 모습들은 많이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시

기를 지내면서도 계속해서 연합의 모임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사무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대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헌신이 이 모임이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과연 처음 시작할 때, 이 연합모임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어떤 결과에 대한 그림을 그린 채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오해받고 어려운 시기에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셨던 교장 선생님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개혁자의 성향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기존의 것들에 그저 머물지 않고 과감한 선택을 하셨던 도전적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로 관점과 생각이 다르기에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고, 연합의 길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대안학교 진영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어서, 컨퍼런스도 회가 거듭될수록 사무국에서 주관학교로 이제는 회원학교들의 협력으로 행사의 주체가 점차 바뀌어져가고 각 학교들이 자신들이 가진 장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랑방공동체에서는 마지막 날 성찬식을 맡아서 2박 3일간 뜨겁게 불타올랐던 열정과 열심을 마음 속 깊이 내면화하고 다짐하며 정리하는 시간으로 다시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일 기

250621 AM3:47 포천 무림리

발 한걸음 내디딜 때, 손가락 한번 들 때마다 의식하고 힘을 들여야 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 내 일상을 짓이겼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 후 주변인들에게 알렸고, 그제야 눈물이 났다. 눈물로 쏟아내니 훨씬 가벼워졌다. 내가 받은 위로의 진실성?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 깨달은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자. 사람을 믿기 어려울 땐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한 시간을 신뢰하자. 다음을 위한 조언, 생각이 많고 마음의 무게에 짓눌릴 땐 무언가 새로운 것+흥미 있던 분야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됐음.

진짜 누군가의 말대로 아홉수를 겪나 싶다. 평안을 넘어 지루함을 느끼니까 삶의 다이내믹을 더해주시길. 이런 사건 사고를 바란 건 아닌데. 글썸, 요즘은 자주 울컥 눈물이 차오를 때가 많다. C는 내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타입이라고 했고, P는 아니? 그저 약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누구인가? 계속 알아가는 중. 20대 후반, 그중에서도 푹 밀면 3으로 넘어가는 시간 선 위의 나는, 나를 꽤 잘 안다고, 정리만 잘해서 자신 있게 새로운 십년을 맞이하겠다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만이다. 나는 나를 아직도 모른다. 참나. 허탈한데 기분이 나쁘진 않다. 조금 귀엽고, 기대된다.

250820 AM12:51 경상북도 경주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않음을 회개했고, 더 해야 한다. 상상하는 장면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더 이상 꿈꾸지 않았다. 다시 아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한공협 둘째 날이 끝났다. 왜 왔는가? 글썸 뭔가 답을 얻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답을 얻었나? 이것도 글썸... 공동체로 살아감은 삶의 진지한 고민 끝에 닿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는? 진짜 글썸... 난 정말 흘러가듯 살아온 것 같다. 그리고 싶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확신이 없다는 것만 확신할 수 있다. 오늘 대화를 나누었던 살롬공동체 자매님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성아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459장, 511장

성 경 : 시편 18편 1절~2절

말 씬 :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 국가간 무력충돌의 확산에 대하여 >
전쟁의 소식은 그치지 않고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강대국들이 국가간의 무력 충돌을 하며 이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평화롭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 기독교대한학교 컨퍼런스 >
7일부터~9일까지 400여명에 가까운 전국의 기독교대한학교 교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을 주최하는 연맹과 주관하는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이번 주일에 있는 4/4분기 공동체운영위원회를 위해.
 - 2) 공동체에 속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기대연컨퍼런스에 학교 선생님들이 참석하셔서 무림리에 남아있는 인원들이 적었지만 컨퍼런스에 참여한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공동식사를 비롯해 아침기도회와 수요정오기도회 등 본격적인 2026년 생활이 시작됩니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 때문에 걱정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더욱 활기차고 힘있게 시작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
< 요한복음 16편 2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이용신 장로

찬송 : 79, 200, 539 / 325

기도 :

성경 : 사무엘상 23장

제목 :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다

- 1-5절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출하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도우라는 소명에 따르다.
적용 : 공동체는 어려운줄 알면서도 갈 길을 간다.
- 6-15절 사울의 확산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다.
적용 :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 16-18절 요나단의 격려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은 나만의 믿음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적용 :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 살펴보고 격려하고 돕는다.
- 19-28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다
위급한 상황인데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환경으로 역사하신다.
적용 : 하나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어 나간다.

성서일기

편지로 써내려간 기도

지난 12월, 두 딸이 처음으로 각각 혼자 배움의 길을 나섰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이동하던 아이들이라, 혼자 떠나는 여정이 과연 괜찮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떠올리면 각자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처음 혼자'라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2월 14일, 아직은 미성년자인 나우를 먼저 혼자 보내야 했던 날에는 불안과 걱정의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우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우야,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소통을 하며 다양한 문화를 마음껏 경험해 보고 오렴. 네가 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놓치지 않으시고, 네가 방향을 몰라도 이미 네 길을 알고 계신 분이시란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순간, 너의 힘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순간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빛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나우가 완벽해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가려 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란다. 낯선 길을 혼자 걷게 된 오늘이 두렵지 않기를 바라며, 너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심을 기억하렴."

이후 2주가 지나, 시우를 떠나보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나우를 보냈던 경험이 있었기에 조금은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시우에게도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 (시편 121:8) 시우야, 대학교 1년을 적응하면서 주변의 실력, 속도, 기준 속에서 공부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꼈겠지. 영어 앞에서 자신감이 흔들릴 때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되는 순간도 많았을 거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 한계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쳐 보겠다고 한 너의 용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시우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너를 세상과 연결해 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 거라 믿어. 너의 출발과 머뭇을 지켜 보시는 하나님이 늘 시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렴."

딸들에게 보낸 말들이 결국은 내 마음을 붙드는 고백이 되었고, 흔들리던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두 딸을 차례로 떠나보내며, 걱정이 앞설 때마다 기도로 내려놓는 법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신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사랑방 우창숙 집사

지체들의 삶

보물 기억

가끔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나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동네 골목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다가 흙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목욕했던 기억. 여름만 되면 아버지 트럭 뒤에 친구들을 모두 태우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냇가에 도착해 해가 질 때까지 신나게 놀았던 기억. 그러한 기억들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고 살아갈 힘을 준다. 지음이에게도 이러한 기억을 선물해 주고 싶었다. 점점 자연과 멀어지는 삶 속에서 지음이는 행복하게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꾸러기학교를 알게 되었고, 처음 꾸러기학교를 방문했던 날 자연 속에 있는 학교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 내가 어릴 때 뛰어놀았던 환경과 너무 많이 닮아있어 안도감이 들었다.

선생님들의 헌신 속에 지음이는 하루하루 성장해 나갔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기다려 주는 것인 거 같다. 하지만 꾸러기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려 주고 아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길이 비록 조금은 더 어렵고 비효율적인 길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을 꾸러기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배운다. 내가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지음이가 나보다 훨씬 많은 식물의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연 속에서 많은 것들을 기다림을 통해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꾸러기학교를 생각하면 감사함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아빠들이 아이에게 가장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찬스!!! 아빠캠프를 빼놓을 수가 없다. 나는 감사하게도 총 3번 아빠 캠프를 참여할 수 배움과 가르침

있었는데 지음이는 정말 아빠캠프를 1년간 준비한다. 아빠캠프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내년의 아빠캠프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아빠 내년 아빠캠프 때에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 크림파스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빠 내년 아빠캠프는 장기 자랑 마술해 보고 싶은데.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집에 도착해 있다. 이때부터 지음이는 일 년 동안 모든 것들을 아빠캠프와 연관되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준비한다. 이 과정 속 대화의 상대는 당연히 <아빠>이다. 나는 이 대화가 너무 소중한 행복하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릴 적 행복했던 나의 기억들. 지음이에게는 아빠캠프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꺼내어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보물 기억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뿌듯한 기분마저 든다.

그동안 우리 가정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음이의 입원, 아내의 수술, 셋째 이음이의 탄생... 3번의 간병인 생활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하지만 돌아보면 감사, 감사, 또 감사의 날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정에게 정말 귀한 사람들을 주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했다. 특히 사랑방공동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 꾸러기학교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꾸러기학교 아이들 덕분에 잘 이겨내고 더 단단하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 앞으로 나음이의 꾸러기학교 생활도 기대해 본다. (나음이는 나도 이젠 아빠랑 아빠캠프 갈 수 있다고 벌써부터 들 떠있다...)

꾸러기학교 이지음 아빠 이준형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6 : 8-11 인도자
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397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16 : 19-24 설교자
182 새씩사랑방
“ 근심을 넘어서는 기쁨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89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연갑 이윤순 / 봉헌위원 : 서병욱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근심을 넘어서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근심을 넘어서는 기쁨

만찬에서 대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곧 다가올 권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찬양.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수감되었고, 하나님의 인도로 빌립보로 갔습니다. 자신들은 죄 없이 매 맞고 갇힌 몸이 되었지만, 이런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기쁨이 그들 속에 넘쳐났습니다.

넘치는 기쁨. 상황과 조건을 뛰어 넘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땅의 기쁨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모든 애통과 근심을 넘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전경희 집사